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정진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맥추감사절 메시지

정확한 통계 수치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번 하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나쁜 세균 수십만마리가 죽어 버린다고 한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마도 몸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던 독이 빠져 나간다는 뜻일 것이다.

사실 이세상을 바라보거나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감사할 일 보다는 오히려 짜증스러운 일이 더 많고 감사하다고 허리를 굽실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위선자같이 보여 구역질까지 생기는 경우가 어디 한두번이던가.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릴수록 우리의 몸 안에는 악한 균들이 왕성하게 번식할 것이고 나쁜 세균이 기승을 부리게 되며 엔돌핀도 생성되지 않을 터이니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셈이 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지라 감정도 쉽게 전염되는 것 같다. 화를 내고 불쾌한 언동을 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있기만 해도 자신도 쉽게 화가 치밀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다른 불쾌감을 전달하므로 결국 부정적 파급현상은 악순환을 일으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하는 마음엔 어떤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보통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미워해야 할 일을 당하고도 감사하며 사는 이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은혜로 보느냐 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선이 불분명한 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조건을 초월하여 주관적으로 마음먹기에 따라 항상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위치를 낮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겸손 자체가 이미 큰 덕이 되지만 겸손할수록 우리의 감사는 더욱 부피와 무게를 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감사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의 자료

가 될 것이다.

* * *

오늘은 맥추감사절이다. 우리는 밀 보리 추수를 한 농부의 기쁨은 갖지 못했지만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 특히 위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힘과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우리의 기도예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같은 복을 받은 것임을 알아. 기왕에 드

감사의 찬양을 불러야 한다. 밀밭에서의 독창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 특히 교회에서 주님의 자비와 권능을 넓게, 크게 찬양해야 한다.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자. 길도, 안내자도 없는 광야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의 길동무가 되어주셨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니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토옥에 유배된 수인(囚人)과 같이 억압과 고독, 흑암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는 철창과 낚시를 부수며 쇠뿔장을 꺾고 우리를 구출하셨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병에서 회생케 하셨으니 이 또한 감사가 아닌가. 사탄에게 포로되어 회생될 가망도 없고 죄값으로 얻은 질병과 같이 치유받을 염치도 없는 처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식욕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민족의 역사를 뿌리까지 흔들

어 버린 노도 광풍 앞에서 파멸 외에 아무 것도 기다릴 것이 없었거늘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줄을 던져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다.

여호와께서 강을 말려 사막이 되게 하시고 옥토로 소금밭이 되게 하셨으나 이제는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에도 물이 흐르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고 방황하던 이들에게 거할 성을 세워 주셨으니 밭에는 소산물이 풍성하고 우리에는 가축이 불어나며 상에 돌린 자녀들은 화기애애 기쁨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지혜있는 자는 이같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고 감사하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자.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천년성과 같은 서울교회를 짓기 위해 눈물과 진액을 쏟아붓는 기도와 헌신을 한 우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한번 감사를 크게 해보자.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하나님의 전(殿)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를 크게 드리자.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리라



이종윤 목사

릴 감사라면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자.

받은 은택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받을 복에 대하여도 감사를 해야 한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 하셨기 때문이다.

심리길에도 굴곡이 있고 한손에 붙은 손가락 중에도 짧고 긴 것이 있거늘 성인군자들과만 이웃하여 쾌적하게만 살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은 환난의 날에는 주께서 소성케 해주시고 악인이 음해하려 할 때에는 주께서 저들의 흉계를 분쇄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구원에 대하여도 감사해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수난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해서 주님의 은고를 탄원해 보았지만 주님은 자비를 철회하신듯 응답이 없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설 수는 없다. 주님 외에 우리를 도울 분이 없으며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먼저 불러야 한다. 기도 응답은 기정 사실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으로 나온다 해도 우리는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수술 후 얻은 자유함

이형희(집사, 12교구)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성경말씀도 매일 읽었으나 내 삶에는 그리스도인다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와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어머니가 무섭고 어려워서 교회도 못하고 조금 하던 교회봉사마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지 제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빈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했으나 차도가 보이지 않고 악화되지만 하다가 급기야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 몸에 마비증상까지 나타나 머리사진(MRI)을 찍어보니 뇌종양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수술 일정을 잡고, 검진을 위해 병실을 옮기는 일까지 하나 하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극적으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한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주셨던지요.

수술할 날을 기다리는 마음은 몹시도 초조했습니다. 그나마 4월 23일로 잡혔던 수술날짜가 의사의 해외 세미나 참석 관계로 5월 14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가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것은 인간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3주일이란 시간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다락방 식구들은 금식하며 새벽기도회에 참가하여 저를 위해 기도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뭉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고린도후서 3장 17~18절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라”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주신 말씀을 힘입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수술에 들어갔고 마취에서 깨어날 날 때 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119편 71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기 42장 5절)

사와 간호사의 소리, 기계의 분주한 소리 모두가 천사들이 나를 위해 움직여 주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골 철길이 보이면서 철길 한 칸 한 칸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보이더군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절로 두손 모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출혈이 있어 재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신자이신 시어머니도 다급해지시자 교회에 가서 머느리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 병이 악화되면 교회에 나가시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병세가 눈에 띄게 나아집니다. 아직은 어머니의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 해매일 때마다 천사들이 제 곁에서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실에 와서 안 일이지만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 성도들의 기도로 위험한 순간을 넘겼음을 알았습니다. 수술 후 누워 있는 것조차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제는 누워있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기만 합니다.

뇌종양이란 병을 얻은 것도, 수술날짜가 연기되었던 것도, 재수술을 받은 것도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란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원에 힘입어 빠른 회복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요즈음 하루 하루가 축복의 삶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김상옥(집사, 3교구)

뜻하지 않은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기까지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기도원에 다녀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앞자리에 동승했던 집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어느 정도의 사고인지... 방정맞은 생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중환자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침상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나고, 환자의 가족들은 대기실 좁은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마는 10cm가 넘게 찢어져 꿰매이셨고 어깨뼈 골절로 응급처치를 막 끝낸 상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온 얼굴과 몸 전체가 멍이 들고 피부성인데다 손끝만 닿아도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증거들을 볼 수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염려하던 뇌손상의 이상은 보이지 않으셨고 며칠 후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이마의 상처는 기도하러 다녀오다 얻은 영광의 상처 쪽으로 생각하고 이

✧ 순례자 컬럼 ✧

“과분한 은혜”

징계를 받아 마땅할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그가 저지른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은혜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은 징벌 대신 사랑의 선물로 아들을 주신 것이다. 다윗왕의 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요압장군이 백성 앞에 그 죄를 폭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암몬 족속을 쳐서 승리의 기세를 잡아놓고 다윗에게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꽃도록 한 것은 다윗에게는 과분한 대접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분에 넘치는 면류관만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할 것이다. 은혜는 열락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보답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에는 곡식이 더였으매...

제는 어깨뼈가 잘 붙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울교회 목사님들, 어머니의 쾌유를 빌며 매일 정오에 합심하여 기도해 주신 루디아진 도회원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원 여러분, 다락방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기도하는 분들로 병실이 가득 차고 예배 드릴 때마다 통증이 사라지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옆 침상의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어머니의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천만분의 일이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잃지 않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홍해작전 기간 중 바쁘고 피곤하신 중에도 함께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신 서울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께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주경자(집사, 1교구)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위로받았으며
힘이 없어 누워 기도 드릴 때
내 기도 다 듣고 계심에 위로 받았으며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릴 때
남김없이 내 눈물 거두어 가실 것에
위로받았으며
아파서 고통스러워 괴로와할 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위로받았으니
내 삶에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인하였고
기뻐서 찬양부를 때면
위에서 기뻐받아주시고 믿고 감사하였고
길에서나 차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으니
내 삶에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서울교회에 늘 은총이

서울교회의 봉사와 헌신은 이 김치세미나에 참여했던 오세아니아주의 목회자들에게 큰 영적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서울교회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신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실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임장로 선출은 잘 되셨는지요. 피택된 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토머스 듀핀(호주)

핍박을 이길 힘을

제 7차 김치세미나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치세미나에서의 경험을 이곳 교인들과 나누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요.

저는 세미나기간 중 인도네시아에서 온 저희 그룹에서 회교국가에서 교회의 성장과 복음화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토의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언젠가 주일 예배를 드리던 11시30분쯤 갑자기 5백 여 명이 교회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몽둥이와 돌맹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교회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석과 강대상, 기구와 건물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이 다다치기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1만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회교의 세력이 강한 인도네시아의 교회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특히 저희들이 있는 수라베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락방모임 기도 때 이곳을 기억해 주십시오. - 림 잡 포(인도네시아)

충만함으로 갚아주시길

김치세미나에 참가한 오세아니아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목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의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으며 우리 참가자 모두는 그 리스도인의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으로 이곳에서의 목회가 더욱 풍요로워졌으며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치세미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와 서울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새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번더 한국을 찾아 생명력이 넘치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경험할 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 필립 나이프(호주)

그 축복 우리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김치세미나를 마련하신 데 대해 하나님과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체험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봤습니다.

1. 제자화와 제자도(Discipline & Discipleship)
2. 민족복음화를 위한 열망(Desire)
3. 소명에 대한 헌신(Dedication)
4. 한국과 세계로 복음을 전하려는 결의(Determination)
5. 범사를 하나님께 의뢰함(Dependence)

여러분이 누리는 이러한 복이 저희들 것도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제목입니다. 바투말라이(말레이시아)

호주로 오십시오

김치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기회를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겐 너무나 인상 깊은 경험이었고 고국에 돌아와서 줄곧 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려깊고 세심한 배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드니로 오셔서 그 따뜻함을 전해주는 기회가 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김치세미나에 봉사하시고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립 브래드포드(호주)

오늘은 맥추감사절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 우리교회는 지난 반년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종일 감사와 축제를 날로 지내게 된다.

주일 낮 I·II·III부 예배 시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맥추감사절 특별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다. 교회학교에서는 자체 내에서 축하행사를 가지며 올해도 지난 6개월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초등부찬양대의 감사찬양 순서가 있다.

툼 휴스턴 목사 방한

세계로잔위원회 전 국제총무이며 현재 순회전도강연을 하고 있는 톼 휴스턴 목사(영국)가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종운 목사) 초청으로 오는 17일 내한한다.

휴스턴牧사는 이번 방한 중 김치신학세미나의 고문으로 김치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로잔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당회원수련회

우리교회 당회원들은 16일(화), 17일(수) 양일간 경기도 기흥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길동무

사랑하는 서울교회 어린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서울교회 어린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쉬임없이 기도하면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과 항상 가깝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생각만해도 내게는 큰 힘이 되고 자랑과 기쁨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교회와 민족의 내일의 일꾼들이며 희망이기 때문이지요. 모조록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1.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신구약 성경 10번 이상 읽기
 2.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3. 거들난 사람이 되어 기도와 찬송을 많이 하기
 4. 남을 잘 섬기고 잘 질질도 아는 신앙인격 갖추기
 5.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최고 모범생이 되기
-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최선을 다할 터이니 여러분도 서울교회 어린이답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피차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 이종운



■... 이들은 지난 한주간 방송된 극동방송의 "우리는 주의 어린이" 프로 중에서 이종운 목사가 우리교회 어린이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1월

- * 신년예배와 성찬식
- * 순결서약식
- * 농어촌 107개 교회와의 결연
- * 주간성경공부 시작
- * 청지기수련회
- * 필그림예술선교단 창단

▶2월

- * 여전도회연합회 헌신예배
- * 교회학교별 겨울수련회
- * 상반기 장학생선발

▶3월

- * 청년부 헌신예배
- * 김치(KIMCHI) 로잔에서 공인기관 인정
- *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집례
- * 제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개강-주제:

"현대 사회와 교회"

▶4월

- * 부활절 예배와 성찬식
- * 대학부 헌신예배

▶5월

- *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임과 나눔의 장"
- * 오세아니아 목회자 초청 제7차 김치신학 세미나 개최

▶6월

- * 중등부 헌신예배
- * 가정의 달 행사
- * 공동의회 - 장로 4명 선출
- * 고등부 헌신예배
- * 96홍해작전 - 주제: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 목회자·교우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오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찬기도회와 장신대 주최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각각 설교와 강연.
- * 전호진 목사는 안식년을 맞아 출국.
- * 이순환 목사·권지희 사모 7월 4일(목) 득남.
- * 박태규 집사·송희숙 성도(11교구) 6월 27일(목) 득녀.
- * 윤성남 집사·이영희 집사(9교구) 7월 5일(금) 송파구 석촌동에 '서울오토정비센터' 개업.
- * 김성준 집사·김선영 집사(10교구) 7월 11일(목) 강남구 역삼동에 (주)켈코(Kelco) 개업.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2. 오세아니아 교회들을 위해
3. 농어촌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4. 투병 중인 성도들과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